

# 대한 양계협회

소식

## 살처분 보상금 지급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회신

본회는 위생 51582-263('97.3.20)에 의한 살처분 등 보상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가금티푸스, 가금인플루엔자, 뉴캐슬병도 보상금지급 요령에 삽입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본회 입장을 농림부에 의견을 제출하여 이에 대한 회신 내용이 접수되었다.

### 1.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안)에 대한 의견서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① 근자 양계업계에는 각종 전염성 질병의 발생으로 양계인들이 크나큰 수난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지구책을 강구하느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가금티푸스, 가금인플루엔자 등은 이에 특별한 예방주사도 개발되지 않고 치료법도 없어 양계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양계업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뉴캐슬병에 대한 예방약은 많이 있지만 점점 변이형으로 발생되어 예방주

사를 한 계군에서도 동질병이 발생되어 피해를 보는 농가가 허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바 이를 근절키 위하여는 발생되었거나 발생되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계군을 조기에 살처분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③ 그런데 위생 51582-263('97.3.20)에 의한 살처분 등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개정(안)에 의하면 양계분야에는 추백리에 걸려 살처분한 종계에 대해서만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되어 있고 양계업계의 고질적인 중요 질병인 뉴캐슬병, 가금인플루엔자, 가금티푸스 등이 제외되었음은 심의 유감스런 일로 정부가 양계질병 박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단적인 표시라고 양계인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④ 물론 지급 요령(안) 제2조 제6호에서 막연하게 표시하고는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차별화 될 우려가 있으며 아니면 예산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을 우려가 큼니다.

⑤ 그러므로 지급 요령(안) 제2조 제2호에 다음과 같이 가금티푸스, 가금인플루엔자, 뉴캐슬병을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지급 요령(안)	본 회 요 청
제2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2조
1. 생 략	-----
2. 우역, 우폐역, 구제역, 비저, 광견병,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또는 돼지콜레라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살처분한 가축	----- 뉴캐슬, 가금인플루엔자, 가금티푸스에 -----
3~7. 생 략	-----

⑥ 지급 요령중 제2조 제2호를 제외한 기타조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 2. 살처분보상금 지급대상 질병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농림부)

① 살처분가축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안 제2조(보상금의 지급대상)와 관련, 지급대상 질병에 뉴캐슬, 가금인플루엔자, 가금티푸스를 추가하여 달라는 내용을 검토한바, 살처분보상제도는 전염병 근절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이지만 이에 따른 정부예산의 형편을 감안하여 지급대상 질병을 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닭 질병중 피해가 큰 뉴캐슬병은 근절대책 차원에서 금년부터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추백리는 신규로 보상금 지급대상 질병에 포함하였으며 가금티푸스는 예산의 형편을 감안 그 대상질병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금후 보상금 예산을 증액 확보한 후 살처분정책을 시행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가금인플루엔자는 현행과 같이 살처분보상금 지급대상 질병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육용병아리 및 종란 감산 실시 3주간에 걸쳐 병아리 260만수, 종란 180만개 감축키로



본회는 최근들어 육계 병아리 가격이 100원대 이하로 하락하고 육계가격은 생산비를 크게 하회하는 800원까지 폭락하는 등 육계관련업계

가 불황에 돌입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4월 16일, 23일 두차례에 걸쳐 종계, 부화장 대표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병아리, 종란 생산 감축키로 결정하여 25개 종계, 부화장을 중심으로 지난 4월 17일 부터 감축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결정된 내용을 보면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는 5월 10일 3주간에 걸쳐 주당 72만수의 병아리 총 216만수를 랜더링 처리하고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주당 93만 6천개씩 총 187만2천개의 종란을 식난 처분키로 결정하였으며 생산자들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춰 계육협회 회원인 계열주체에서도 50만1천수의 병아리 감산에 동참키로 결정하였다.

병아리 랜더링 장소는 하림, 풀그린 에서 실시키로 결정되었으며 종란은 서울경기양계조합 난가공 공장에서 난가공용으로 사용키로 하였다. 4월 30일까지 실적을 보면 종계 부화업체에서 병아리 1,506,383수, 종란 618,850개가 살처분되었고 계육협회에서는 병아리 356,200수를 폐기처분하였는데 계획량에 병아리는 70%, 종란은 33%의 실적을 보여주었다.

##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질병예방 대책 세미나 개최

4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구천석)가 지난 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가금티푸스, ND 등 질병피해가 늘어 예상보다 계란 유통 상황은 대체적으로 원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유통의 불합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최근 질병피해가 채란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최근 질병동향과 예방 대책”에 대해 수의과학연구소 김기석 과장의 강의가 있었다.

이어 벌어진 정보교환 시간에는 난가의 2중 시세가 이제는 공공연한 유통체계중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히면서 여전히 고시가에서 15원 이상이 벌어져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중 시세를 야기하게된 근본문제가 직장기로 난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을 두고 그에대한 대책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에따라 후장기 체도를 당장 없앨 수는 없으나 이를 단축시키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데 공감을 갖고 후장기로 인해 피해를 주는 약덕상인들을 색출하여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도 논의가 되었다.

## 중계부화분과위원회 개최 생산조절 불가피

4월 중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9일 온양 그랜드파크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업계가 불황을 맞이 하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인위적인 생산조절과 자연감소 유도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할 경우 인위적인 생산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데는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지난해와 같은 종란수입은 계열업체들의 종계물량 과잉, 높은 환율 등 제반여건을 볼 때 수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닭고기 소비와 관련하여 최근 대만의 돼지구제역으로 인한 수입금지조치로 닭고기 소비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으며 질병방역

비 증가로 각농장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구매로 인한 생산비 절감방안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불황 장기화 조짐

4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육계가격이 1,000원에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에서 이보다 낮은 700~800원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심각성을 더해주었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것은 지난해 12월 육계가격이 장기 불황을 보이자 대부분 환우에 들어갔던 종계가 3월부터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고 있으며 국내 경기침체와 맞물려 소비가 지난해 대비 20% 이상 대폭 감소한데 원인을 찾았다.

또한 7월 1일부로 닭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서 이미 들어온 물량과 최근 닭고기 소비부진에 따른 계열업체들의 비축물량이 일시에 풀릴 경우 육계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부 농가에서는 종계, 부화장들의 병아리 감산 움직임이 보이자 입추열기가 높아지는 등 큰 대조를 보여 업계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중계, 부화업계의 병아리 감축과 관련해 일시적인 가격올리기 작전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하였는데 병아리 감축의 효과가 앞으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외에 결제지연문제, 유통업체의 병아리 수

수료 문제 등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과 같다.

## 달걀, 닭고기 요리강습회 및 시식회 개최

서울 경기지역내 15개소에서



본회는 달걀, 닭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97한국양계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박람회 사전홍보 및 요리솜씨대회 참가를 적극 유도키 위해 지난 29일 강화군 농촌지도소에서 150여명의 소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달걀, 닭고기 요리강습회 및 시식회”를 시작한 것을 필두로 6월 초까지 전국 15개소에서 소비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본회가 주최하고 한국식생활연구회가 주관하며 종발협과 경인유통이 협찬을 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식생활연구회 안승춘, 박경신씨가 강사로 나와 각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달걀, 닭고기 요리 7~8종을 직접 현장에서 선보이며 참가자들에게는 시식의 기회가 마련되었고 양계박람회의 사전 홍보행사의 일환으로 요리솜씨대회 참가안내가 있었다. 일정표는 다음

### '97 달걀·닭고기 요리교육 일정표

월일/요일	시간	장 소 명	예상인원
4/29(화)	14시	인천 강화군 농촌지도소	150명
5/6(화)	09시반	서울 강동구 강동복지관	70명
5/7(수)	14시	서울 양천구 목동교회	150명
5/12(월)	14시	인천 계양구청	150명
5/13(화)	14시	경기 광명시 하안복지관	70명
5/16(금)	14시	서울 강서구 등촌 제3종합복지관	100명
5/19(월)	10시	서울 양천구 한빛 복지관	100명
5/20(금)	10시	경기 성남시 분당중담복지관	70명
5/23(금)	10시반	인천 남구 인천여성복지관	200명
5/23(금)	14시	인천 남구 인천여성복지관	200명
5/26(월)	14시	서울 동작구 동작복지관	70명
5/27(화)	14시	경기 부천시 L.G. 문화센터	100명
5/28(수)	14시	인천 농촌지도소	150명
5/29(목)	14시	서울 강남구 수서성남복지관	70명
6/4 또는 6/5	14시	서울 송파구 마천복지관	70명
계		15개소	1,720명

### 제3회 병아리 장학금 글짓기 대회 총 응모작품수 2,009편 접수

본회가 '97한국양계박람회 개최에 즈음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병아리 장학금” 글짓기를 모집한 결과 응모작품수가 총 2,009편이 접수되어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였다.

5월 3일까지 심사가 끝나 당선된 작품은 5월 19일자 소년 동아일보에 명단이 발표되며 당선작은 별도 책자가 제작된다. 시상식은 6월 24일 오후 1시 한국종합전시장 대회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